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0.10(금) ~ 2025.10.16(목)

제공일시 2025 10 24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

문의 02 398 6432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0.10(금) ~ 2025.10.16(목)

제공일시 2025 10 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## 글로벌 정책

### 1. "유럽 오려면 기술 내놔야"... EU, 중국 기업에 기술 이전 요구 검토

- 유럽연합(EU)이 역내에서 사업하는 중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산업촉진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
- 이번 조치는 유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강도 규제로, 자동차·배터리 등 첨단 제조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함
- EU산 상품과 노동력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고, 제품 내 부가가치를 EU 내에서 창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

[\(한국경제 2025.10.15\)](#)

### 2. "글로벌 핵융합 패권 전쟁 본격화"美·中·獨 상용화에 수조원 투자, 韓은?

- 핵융합이 '꿈의 에너지' 단계를 넘어 상용화 경쟁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·중국·독일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임
- 미국은 인공지능(AI)과 민간 협력을 중심으로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, 중국은 2023년 이후 핵융합 인프라에 약 65억달러(약 8조7000억원)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분석됨
- 독일은 정부 주도의 실행계획에 따라 상용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, 미국 싱크탱크 SCSP는 중국이 '배치와 상용화 단계에서 글로벌 리더십 확보'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함

[\(헬로디디 2025.10.15\)](#)

### 3. 브라질 '지속가능연료 서약' 준비, 2035년까지 친환경 연료 생산량 4배로

-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30) 개최국인 브라질이 2035년까지 친환경 연료 생산량을 현재의 4배로 늘리는 '지속가능연료 서약'을 추진 중임
- 브라질 정부는 각국과 협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, 서약 초안에는 2024년 기준 전 세계 지속가능연료 생산량을 최소 네 배 확대한다는 목표가 포함됨
- 브라질은 자국의 풍부한 바이오연료 생산 기반을 활용해 글로벌 지속가능연료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됨

[\(비즈니스포스트 2025.10.15\)](#)

## 국내 정책

### 1. "LNG발전소 신설 땐 용량 절반"...탈원전 이어 탈가스

- 정부가 노후 액화천연가스(LNG) 화력발전소를 새로 지을 때 기존 설비의 절반 규모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
-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, 탈가스 정책까지 병행될 경우 전력 수급 불안정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됨
- 정부는 발전 공기업 5곳에 해당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으며, 발전업계는 이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탈가스 가속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임

[\(한국경제 2025.10.15\)](#)

### 2. 이산화탄소 연간 3만톤 포집...정부, 현대건설 컨소와 CCU 플랜트 준공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건설 등 민간 기업과 협력해 평택 수소특화단지에 이산화탄소 활용(CCU) 실증 플랜트를 준공함
- 'CCU 3050 사업'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플랜트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액화탄산 및 드라이아이스 등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실증했으며, 연간 3만톤 수준의 탄소를 처리할 수 있음
- 정부와 기업들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해당 설비를 상업용으로 지속 운영해 CCU 제품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임

[\(뉴시스 2025.10.14\)](#)

### 3. 내년부터 기업 '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' 16.4% 줄어든다

-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'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'에서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25억3729만톤으로 잠정 결정함
- 이는 3차 계획기간의 약 30억4825만톤보다 16.4% 줄어든 수준으로, 정부가 감축 목표를 대폭 강화한 결과임
-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이번 계획은 산업별 배출 상한 조정과 함께 기업들의 감축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됨

[\(뉴스트리 2025.10.14\)](#)

## 글로벌 기업

### 1. 폭스바겐 이어 포드·르노 등 5개사 피소…콧사법사상 최대 집단소송

-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서 폭스바겐, 포드, 르노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160만명 이상이 참여한 배출가스 조작 집단소송이 시작됨
- 제조사들이 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를 줄이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혐의로 제소됐으며,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60억파운드(약 11조4200억원)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

[\(임팩트온 2025.10.15\)](#)

### 2. 美 잔타파워, 3D 태양광타워로 79억원 시드 유치…“태양광 효율 3배”

- 미국 텍사스의 스타트업 잔타파워(Janta Power)가 3D 타워형 실외 태양광 시스템 상용화를 위해 약 79억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함
- 기후테크 전문매체 클린테크니카는 이 기술이 기존 대비 2~3배 높은 발전 효율을 보이며, 공간 제약이 큰 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해 고효율 솔루션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함

[\(임팩트온 2025.10.15\)](#)

### 3. 中BYD, 스페인에 전기차 공장 설립 검토…유럽시장 공략 가속

-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BYD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스페인에 전기차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며, 제조비용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고려해 유력 후보지로 지목됨
- BYD는 올해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, 스페인 정부의 생산 허브 전략과 테슬라와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

[\(연합뉴스 2025.10.14\)](#)

### 4. 미국 GM, 수소전기차 브랜드 '하이드로텍' 중단…수요·인프라 부족

- GM이 수소연료전지 브랜드 하이드로텍(Hydrotec) 운영을 중단하고 전기차 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함
- 회사는 승용차 시장의 수소 수요 저조와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들며, 향후 수소연료전지는 대형 트럭과 산업용 전력 등 일부 분야에 한정해 활용할 계획임

[\(전기신문 2025.10.14\)](#)

## 국내 기업

### 1. 삼성, 멕시코 은·아연 광산에 700만 달러 투자...배터리 핵심광물 2년간 독점 공급

- 삼성 계열사가 캐나다 실버스톰 마이닝(Silver Storm Mining)과 선금금 계약을 체결하고 멕시코 두랑고주 라파리아 은광 재가동에 참여함

-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 자회사들은 18개월간 총 700만달러(약 99억원)를 투자하며, 실버스톰은 이 자금으로 제련소 복구 및 지하 채굴 재개를 추진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임

[\(글로벌이코노믹 2025.10.15\)](#)

### 2. 씨에스윈드, 덴마크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초 구조물 출하

- 씨에스윈드 덴마크 법인이 린되(Lindø) 공장에서 제작한 길이 최대 123.6미터, 중량 2515톤 규모의 초대형(XXL) 모노파일(monopile)을 성공적으로 출하함

- 이번 성과로 씨에스윈드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초 구조물 제조 기록을 세웠으며, 용접 결함률 0.05%로 정밀 제조 역량을 입증함

[\(프레스나인 2025.10.15\)](#)

### 3. 韓 '마스가'로 불동 된 美·中 무역갈등

-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내 5개 자회사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며, 미국 조선 부활 프로젝트 '마스가(MASGA)'에 협력한 데 대한 제재를 단행함

- 이는 미·중 무역 갈등 속 한국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된 첫 사례로, 향후 HD현대중공업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

[\(한국경제 2025.10.14\)](#)

### 4. '베트남 원전수주' 기반 다지는 한전...현지 전문가 키워준다

- 한국전력이 베트남 닌투언-2 원전 발주처인 국가산업에너지공사(PVN)와 인력양성 협력을 위한 공동워킹그룹(JWG) 워크숍을 하노이에서 개최함

- 이번 행사는 양국 간 원전 인력양성 협약의 후속조치로, 한전이 한국의 원자력 인재양성 경험을 공유하며 베트남의 원전 기술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서는 자리였음

[\(파이낸셜타임스 2025.10.14\)](#)

# 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0.10(금) ~ 2025.10.16(목)

제공일시 2025 10 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## 세계은행 이사국 절반 이상, “연간 자금 45% 기후사업에 투입해야” 공동성명 발표

- 세계은행(World Bank) 상임이사진 25명 중 19명이 미국의 반대에도 기후변화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, 이는 세계은행 최대 주주인 미국이 ‘기후 의제 축소’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다수 회원국이 이에 정면으로 반대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됨

- 이번 공동성명은 14일(현지시각) 개막한 세계은행-국제통화기금(IMF) 연차총회를 앞두고 공개됐으며, 유럽연합(EU)이 개발은행들의 기후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미국은 ‘기후 대응보다 본연의 개발·빈곤퇴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’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

- 성명에는 미국, 러시아, 쿠웨이트,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이 서명하지 않았고, 일본과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상황을 고려해 기권했으며, 이로 인해 기후정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남

- 이사진들은 세계은행이 연간 전체 자금의 45%를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, 이는 개도국의 저탄소 및 기후회복형 성장 경로를 지원하기 위한 ‘기후변화 행동계획(CCAP)’의 핵심 목표로 명시된 사안임

- 로이터는 다수 이사국이 미국의 기후 의제 축소 주장에 맞서 기존 노선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향후 세계은행 정책 방향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함

- 이사진들은 세계은행의 모든 사업이 ‘파리기후협정(Paris Agreement)’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며, 에너지전환과 자연보전을 모든 사업의 중심에 둘 것을 제안하고, 국제금융기구 내에서 기후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함

- 또한 오염 저감, 자연 보전, 기후적응 및 복원력 강화 등 현행 기후행동계획에서 다루지 않은 영역에 대한 역할 확대를 요청하며, 특히 석탄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함

- 석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은 복잡하지만, 이는 에너지전환의 핵심 과제이며 세계은행이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

- 마지막으로 각국이 장기적인 기후 및 개발 계획을 설계·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술 자문과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, 탄소시장 제도의 설계 및 운영 역량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함

[\(임팩트온 2025.10.13\)](#)